

친환경 광역소각장 입지 재공고

전주시, 4개 지역 대상 1차 공고 결과 접수 없어... 주민지원기금 지급 범위 상향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입지 선정에 공고를 재차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2개월간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해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추진했지만, 유효한 접수 건이 없어 지난 22일부터 2차 공고를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공고에는 1차 공고 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폐기물처리 대상 지역, 예상 규모 등)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 후보지 조건 및 응모 자격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1차 공고와 다르게 주민들(마을 등)의 응모 독려를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를 법적 최대 기준치에 맞게 반입수수료의 10% 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했다.

신설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화 소각장으로, 해당 4개 시·군이 입지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약 3주간의 입지공모를 재차 거친 후 접수된 입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들어설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부 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신규 건립키로 한 것은 상동동 현 전주권 광역소각장센터의 운영기한(2026년 9월) 만료를 앞두고 기술 진

단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광역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2개월간 진행한 1차 공고 기간 동안 1건이 접수됐으며, 응모 자격 불충분 등에 따라 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친환경 소각장 신규 건립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향후 20년 이상 소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 사업"이라며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범위가 법적 최대치로 상향된 만큼 마을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8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

전북청년경제인협회, 간담회 가져... 애로사항 청취·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우범기 전주시장이 우리 지역 청년 기업인들이 가진 고민과 생각, 그리고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간담회에 동참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회장 이일준)는 23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초청한 우범기 시장과 청년 회원 5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은 가장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청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주 시장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년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또 청년 기업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간 궁굠했던 사항들에 대해 우시장에게 즉석 질문을, 우시장은 청년들의 질문과 의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청년 기업인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2021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23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초청한 우범기 시장과 청년 회원 5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년 6월 설립됐다. 현재 제이아이디 자인 이일준 대표를 회장으로 100여명의 청년 기업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주영아원과 세이브더칠드런 기부 등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의 지진 재난지역을 직접 방문해 구호활동을 벌였고, 이스타불청년경제인협회와 중장기적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역량도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이일준 전북청년경제인협회장은

"시장님과 현장의 여러 어려운 점을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면서 "남은 한 해 전북청년경제인 협회는 차세대 청년경제인 육성과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청년의 젊음을 원동력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넘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청년 기업인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걸림돌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주민과의 대화 이어가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효자5동·삼천1동서 실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역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갔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오전과 오후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일정으로 각각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과 삼천1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효자5동·삼천1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주 대변역을 위해 전주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 보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시·경제·문화·복지 4대 분야의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효자5동·삼천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효자5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대안방직 공장부지 복합개발 사업 △항방산 터널 개통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우범기 전주시장은 23일 오전과 오후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일정으로 각각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과 삼천1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효자5동·삼천1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삼천1동에서는 △주택가 골목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상황 △삼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장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

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역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부터 시작한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전주시 35개 동 중 효자2동·효자1동·효자4동·혁신동 4개 동 주민과의 만남을 남겨두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천잠산 일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전주시는 코로나 엔데믹 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많은 시민이 찾는 전주대 뒤편 천잠산 일원 약 900m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천잠산 일원의 생활권 숲길 구조개량과 식생 파과구간 생태계 복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상됐

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노후하고 훼손된 숲길에 구조개량·노면 복원, 야자매트(730m)·배수로(3개소)·목교(1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경사가 급해 이용상 불편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등산로에 원주목계단(45개소) 및 데크계단(60m)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

하도록 추진한다.

또 인접한 편백나무숲에는 데크형 평상(3개소) 및 벤치(4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산림치유와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은 "울창한 숲을 환경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로 조성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능성바이오소재 산업 활성화 협약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23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기능성바이오소재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주시 등 지역의 농생명식품·바이오 기업들과 효소기반 기능성제품 및 미래 먹거리 개발, 생산·소비 선순환 심화와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지원 통해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산업적 성장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원은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



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도에는 5개 기업 지원으로 3.5억 원 매출과 10명 고용 성과를, 2022년도에는 6개 기업 지원으로 2.34억 원의 매출과 9명

의 신규 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업무협약 기업으로는 ㈜비엘헬스케어, (주)코사바이오, 새틀, (주)진엔삼생명공학연구소, (주)수이케이 등이 있다.

연구원은 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능성 소재의 지표성분 분석 및 동물수준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전북의 전주에 소재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내 농생명 기업들이 기능성바이오 소재개발 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전주형 미래농업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	기부(현금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	--------------	-------------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